

윤한덕은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한다

아침시평



허택 전남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일생을 독립투사처럼 살아왔다. 그는 1994년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기로 수련을 시작하며 열악한 응급실에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원 내 통료를 독려하며 새로운 환경을 만들려는 놀라운 의지를 보였다. 응급의학 전문의가 된 후 군 복무 중에도 응급구조사의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군 응급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

아이돌 스타와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푸석푸석한 얼굴에 배는 나와 있었다. “야! 나 잘 좀 자고 운동 좀 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유능한 응급의학 전문의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심한 스트레스에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왔으니 관상동맥이 막혀 가면서 오래 못 살 것을 알았다. 이번 설 연휴에 응급환자에 관한 특별한 사건 사고가 있었는가? 없었다면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과 재난대비를 준비하고 수행하며 죽어간 그를 생각해야 한다. ...

광주시 인권정책, UN 인권교과서로 채택되다

기고



윤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최근 광주시가 인권제도과 정책, 민관협력 등 인권행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했다. UN이 세계 자치단체들의 인권관련 모범사례를 보고서로 작성해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진전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다. ...

단체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의 생활공간인 마을에서부터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마을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2013년 3개 마을로 시작해 지난해 밤실, 일곡, 운남마을 등 15개 마을로 확대되었다. 지역 내 인권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인권교육 영역과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

민관 함께하는 인권거버넌스가 기반

시 인권조례는 2008년 5월부터 시와 광주시민사사무소,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광주인권회의,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조례연구모임’이 2년여에 걸쳐 인권조례의 필요성과 내용을 논의하는 공청회, 토

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2009년 11월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후 조례 제정과정에서 광주시와 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인권회의 등이 참여한 광주시 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정례회의를 갖는 등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권거버넌스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

발언대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화재안전수칙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빈번한 만큼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용품 안전사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 소방본부 화재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11~2월) 화재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에서 2,74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114명이었다. ...

먼저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히터 등을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콘센트를 빼놓는다. 옷장, 이불, 소파 등 가연성물질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스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하도록 한다. ...

특히 보일러실 옆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화재에 대비하도록 한다. 겨울철 수도배관이나 계량기 등의 동파방지를 위해 배관에 설치하거나 농업용으로 비닐하우스 등에서 온실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전기열선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열선에 충격을 주거나 열선을 겹쳐 사용하면 열선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BC Munido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MBC Munido (무등일보) featuring the slogan "가장 빠른 광주뉴스" (Fastest Gwangju News) and contact details.

사설

5·18 왜곡·편향 처벌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5·18 왜곡·편향을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치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 할 반역사·반민주적·반헌법적 처사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

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등이다. 이들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거부는 명분없는 생떼다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차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사립 유치원측의 도는 생떼로 벽에 부딪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등이 반대 성명을 낸 데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 ...

돈 처릴 쓰겠다는데 어느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에듀파인 도입은 만사지탄이다. 에듀파인은 최소한 국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자 하는 최소 장치에 불과하다. ...

춘천 카우보이

1960~70년대 요즘 SF영화만이나 인기 있는 장르가 서부영화였다. 서부영화에 출연하는 보안관은 대부분 가슴에 별을 훈장처럼 달고 마을을 지키는 정의의 사도였다. 보안관이 악당을 하나씩 처단할 때 마다 극장이 떠나갈 듯 박수를 쳐왔다. 극장에서 웬 박수나 할지 모르지만 영화보기 전 애국가 제창하던 시절이니 박수 정도는 약과라 할만 했다. ...

모자를 썼다. ‘갈란’은 미국 남서부 대농장주 신분을 상징하는 모자로 탈바꿈 한다. 존 웨인 같은 인기 영화배우가 쓰면서 카우보이 모자 갈란은 남자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어 하는 로망의 모자가 됐다. 얼마전 국내에서 생뚱맞게 카우보이 맨이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춘천 카우보이’로 변신한 것이다. ...



약슈터

Advertisement for 'Sarambang Newsroom' (사랑방 뉴스룸) with the slogan "가장 빠른 광주뉴스" and contact information.